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다 18일(현지시간)지중해에서 전복된 난민선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이 이탈리아 해군 함정 난간에서 구조 작업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난민선 또... 통곡의 바다, 지중해

### 950명 태운 어선 전복...2000년 이후 2만2천명 사망 시리아·아프리카·리비아...50여만명 유럽행 대기중

난민 950여명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 한 척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를 향하다 지중해에서 전복됐다. 사고 직후 구조된 인원이 수십 명에 그쳐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선 구조작업에 해군 경비정 등 20여척의 선박과 헬기 3대가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생존자는 28명이고 수습된 시신은 24구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전복돼 550명 중 400여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중해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듯= 이번 사고는 이탈리아령 섬인 랍페두사섬과 리비아 사이 지중해에서 일어났다. 리비아 해안에서 북쪽으로 약 112km 떨어진 지점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인명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지중해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몰타 해군은 사고 선박 주변에서 구조·시신 수습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난민 중 300명은 갑판 아래 집간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명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탈리아 검찰에 따르면 생존자 조사 결과 총 승선인원 950



명 중 300명은 밀입국업자들에 의해 갑판 아래 집간에 갇힌 상태였으며, 승객 가운데 여성이 200명, 어린이가 50명 가까이 포함돼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국제사회, '지중해 난민' 대응 요구=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추가 비극을 막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지중해 난민선 전복 사고 수색·구조 작업에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반 총장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주 수백 명이 숨진 잇따른 사고에 이어 다시 비극이 벌어졌다"며 "지중해에서 확고

한 수색과 구조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역내의 난민들이 겪는 곤경을 다루는 현재의 노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면서 "바다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일 뿐 아니라 증가하는 난민들의 망명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당부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자 유럽연합 소속 외무, 내무 장관에게 긴급 회동을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 난민이 최소 21만8000명이며 이중 35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중해 건널 난민 50만명 대기중=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난민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 국경수비대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약 50만명의 난민이 리비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려고 대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내전과 가난을 피해 새 삶을 꿈꾸는 난민들은 4년 넘게 내전을 이어온 시리아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출신이다. 중국 혼란이 이어지는 리비아에서도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IOM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은 3072명으로 2013년의 700명보다 크게 늘었다.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2000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 숨졌다. 지난해 유럽에 불법입국한 난민은 28만명에 달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대만·일본 오키나와 해역 강진...日 쓰나미 주의보

대만 동부 해역과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20일 오전 9시43분께(대만 현지시간) 규모 6.3과 6.8의 지진이 각각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대만 북부에서는 수도관 이 터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일 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오키나와 남쪽에서는 규모 6.8로 관측돼 쓰나미주의의 보가 내려졌으나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

대만 중앙기상국은 이날 대만 화롄(花蓮)현에서 동쪽으로 76.2km 떨어진 해저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은 북위 24.05도, 동경 122.37도, 깊이 17.5 km 지점으로 파악됐다.

이날 지진으로 진앙 인근의 이란(宜蘭)

현 등 동부 지역에서 규모 4, 타이베이(臺北)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서도 규모 3의 흔들림이 각각 감지됐다. 특히 타이베이 등 북부 지역에서는 약 30초간 진동이 이어졌다.

대만 현지 언론은 이날 지진으로 대만 북부 지역인 신베이(新北市) 일부 지역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앙기상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이 낮아 대만 전역에서 흔들림이 있었다"면서 "동부 산악도로 등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NHK는 이날 오전 10시43분께(일본시간)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남쪽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 근해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기상국은 지진의 진원이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지진과 동일한 위치나 지진 측량기구와 산출방식이 달라 지진 규모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은 인근 미야코지마(宮古島) 등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NHK는 높이 1m 정도의 해일이 인근 섬 일부 연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나 접수된 피해 상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했다.

반면 대만 당국은 해일 주의보 발령 기준치인 지진 규모 6.5를 넘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해일 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美 '北 인권 문제' 칼 빼들었다

### 인권 유린 책임 당국자 금융 제재 등 검토

미국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 당국자들을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전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함께 '심각한 인권 침해'도 새 대북제재가 필요한 이유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해준다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

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하는 한편,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며 인권을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등에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제재 대상으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나 공개 처형 등에 관여한 인물·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자들에게는 미국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한 첫 대북 제재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아베 안보 정책, 자국민도 외면 집단지위권 행사 등 반대 절반 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안보 정책에 대해 일본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8~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집단지위권 행사 등 자위대의 국외활동을 확대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반대하고 34%만 찬성했다. 오키나와(沖縄) 본섬 남쪽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북쪽의 헤노코(野間古) 연안으로 옮기는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에 관해서도 53%가 반대하고 34%가 찬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는 작년 선거에서 헤노코 이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기력한 일본 야당...지방자치 위기 무투표 시장 당선 지자체 30% 달해

일본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시장이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6일 시장 선거를 시행하는 일본 8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나가사키(長崎)시 등 27곳에서 단독 입후보자가 무투표로 시장에 선출된다.

이번 시장선거의 무투표 당선율은 30.3%이며 1959년 이후 선거에서 네 번째로 높다.

미에(三重)현 쓰(津)시와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등 현청 소재지의 시장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지율로 민의를 보여줄 수도 없어 선거라고 하기도 무색한 상황이다. 무투표 당선률이 늘어난 것에는 여당과 야당이 같은 후보를 지원하는 이른바 '합승 출마' 경향이 영향을 미쳤고 그 이면에는 야당의 무기력함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산프리모) 광대

대산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초추경도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우승신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랜드 B1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